호남선에 틸팅 열차 달릴까

최대 시속 200㎞…목포서 착수 보고회

호남선에 틸팅 열차〈사진〉가 달릴 수 있을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12일 목포 신안 비치호텔에서 '한국형 틸팅(Tilting) 열차의 신뢰성 평가 및 운용 기술개발'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 철도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 및 운용기술 개발 ▲한국형 틸팅열차의 신뢰성 및 인프라시스템 안정성 평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다. 호남선 등 기존 철로에 틸팅 열차를 투입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는 것이 적당한지 등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철도기술원 신소재 틸팅열차 시스템연구단 고태환 박사는 "송정리~목포 구간의 경우 180㎞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착수 보고회를 목포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틸팅 열차의 최대 시속은 200㎞이고 운행시 180㎞까지 가능하다.

한편 철도기술연구원은 착수 보고회에 앞서 '한빛 200'으로 이름 붙은 틸팅 열차를 오전 10시 충북 오송역을 출발~서대전역~목포(1시 30분 도착 예정) 간 시험 운행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틸팅 열차='틸팅'(tilting)은 기울인다는 뜻으로, 틸팅 열차는 말 그대로 기울어지는 열차다. 곡선 선로에서 차체가 기울어지도록 설계, 속도를 크게 줄일 필요가 없어 운행시간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큰 일교차 감기 환자 속출

광주 지난달보다 50%가량 늘어 건강관리 비상

'가을 장마'가 끝난 광주·전남지역에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감기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완연한 가을을 알리는 백로(白露)인 지난 8일 이후 광주지역은 비가 그치면서 25도 아래를 크게 밑돌던 낮 기온이 27도로 올라섰다. 지난 10일 낮 최고기온은 30.2도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해가 진 후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새벽 공기는 제법 쌀쌀해졌다.

일 최저기온 17~18도로 5도 미만에 불과했던 일교차는 ▲8일 9.2도 ▲9일 9.7도 ▲10일 12.9도 ▲11일 11.7도를 기록하는 등 10도 이상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최진화(여·26·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얇은 옷을 입고 외출했다가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심한 감기로 병원 신세를 졌다"며 "창문을 열어놓고 자다가 감기에 걸린 친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남구 진월동 '열린 이비인후과'를 찾는 10명의 환자 중 6명 정도가 감기 등 호흡기계통 환자로 8월에 비해 40% 증가했다.

서구 금호동 '우리아동소아과'의 경우 감기 환자가 50%가량 증가했고 입원환자의 70~80%는 폐렴환자다.

'우리아동소아과' 한승표 원장은 "기온차가 크므로 겉옷을 챙겨 외출하고, 외출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감기가 악화돼 폐렴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이동성 고기압과 동서 고압대의 영향으로 낮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덥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 일교차가 크겠다"고 전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선대병원 전문진료센터 개원

조선대병원(병원장 홍순표)은 11일 오후 병원 1층 광장에서 김주훈 조선대 총장·김혁종 광주대 총장·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등 내외 귀빈과 병원 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진료센터 개원식을 가졌다.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전문진료센터는 지상 4층 지하 4층 연건평 1만6천198.2㎡ 규모로, 심장혈관·암·척추·당뇨병·응급의료·스포츠 건강의학·종합건강검진센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조선대 수시 2학기 경쟁률 3.2대 1

연·고대 30대1 상회

조선대학교의 2008학년도 수시2-1 최종 경쟁률이 3.2대 1을 기록했다.

조선대에 따르면 11일 오후 원서마감 결과 8개 전형 1천555명 모집에 5천42명이 원서를 접수, 평균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일반학생 전형이 3.9대 1, 자기추천자 전형 2.6대 1, 소년·소녀가장 및 수급자 전형 2.3대 1, 만학도 및 주부 전형 0.7대 1, 농어촌 학생 전형(정원 외) 3.5대 1 등이다.

일반학생 전형 약학과가 2명 모집에 109명이 몰려 54.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간호학과 일반학생 전형과 농어촌학생 전형이 42.1대 1, 20.5대 1로 집계됐다. 또 경찰행정학과 18.5대 1, 특수교육과 17.5대 1, 약학과(농어촌 전형) 18대 1, 경찰행정학과 및 특수교육과 9.5대 1 순으로 나타났다.

고대의 평균 경쟁률은 39.46대 1로 지난해 최종 경쟁률(34.44대 1)보다 도 높았고 연대도 수시2-1 교과우수자 전형은 21.41대 1, 수시2-2 일반우수자전형은 32.81대 1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수시2학기 지원율이 지난해보다 높은 것은 수능 점수체제 변화와 정시모집 학생부 반영방법에 대한 불안심리로 상위권 학생 대다수가 중복 지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전남도교육청 185명 공채

전남도교육청은 교육행정직 등 185명을 새로 선발하는 2007년도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11일 공고했다.

오는 10월27일 시행 예정인 이번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은 교육행정직 160명(일반인 124명, 장애인 4명, 사무원 재직자 32명), 시설직(7급) 7명, 시설직(9급) 10명, 기능직(선박, 선박기관) 8명으로 모두 185명이다.

원서교부와 접수는 10월 2~5일, 필기시험은 10월 27일, 면접시험은 11월 8일 치르며 최종합격자는 11월 16일 발표한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지역 학교들 예산 운용 '멋대로'

계약서 없이 경비 지급·공금 개인 카드 결제

"유해성분이 든 감기약을 사용하고, 계약서도 없이 여행 경비를 지급했는가 하면 업무추진비를 직원 개인 카드로 사용했으며…"

광주시 교육위원회 윤봉근 위원이 11일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밝힌 광주시 교육청 산하기관 및 일선 학교들의 부실한 운영 상태다.

윤 위원에 따르면 S고는 출혈성 뇌졸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004년 8월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된 PPA(페닌포르판올아민)가 함유된 감기약 '시노카캡슐' 320알을 지난해 5월까지 104명의 학생에게 지급했다 감사에 적발됐다.

K고는 지난해 중국 어학연수 여행경비와 관련, 계약서도 없이 항공료 및 비자 발급비 등 명목으로 2천100여만원을 지급했고, 일본체험 관련 학급경비도 계약서 없이 74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J고는 체육경기대회에 출전하면서 들어간 경비 480여만원을 관용카드가 아닌 것으로 사용했으며, S학교는 올 6월 현재 관용카드 자체가 없어 업무추진비를 교직원 개인 카드로 사용한 뒤 교직원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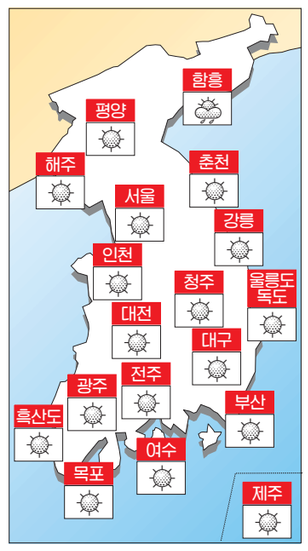
/황태종기자 hwangtae@

오전 안개 조심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9월 12일 (음 8월 2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18~30℃
목 포	구름 조금	19~29℃
여 수	구름 조금	20~28℃
완 도	구름 조금	18~29℃
구 례	구름 조금	16~31℃
해 남	구름 조금	17~30℃
장 흥	구름 조금	15~30℃
고 흥	구름 조금	17~30℃
순 천	구름 조금	15~31℃
영 광	구름 조금	18~29℃
진 도	구름 조금	17~31℃
전 주	구름 조금	18~30℃
남 원	구름 조금	15~30℃
흑산도	구름 조금	20~25℃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2:37 14:44 썰물 07:52 20:03
여 수 밀물 09:32 21:48 썰물 03:24 15:31

▲해뜸 06:12 ▲해짐 18:45 ▲달뜸 06:38 ▲달짐 18:5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날 씨						
최저/최고	19/30	19/27	20/25	19/27	20/26	20/25

광주·전남 스쿨존 지정률 낮고 안전시설 미흡

등하교 초등생 교통사고 전국 최고 수준

광주·전남지역의 스쿨존(School Zone) 지정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데다 스쿨존 내 안전관리시설까지 미흡해 초등학교 등하교길 교통사고 발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문헌 의원(한나라당)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광주지역 초등학교 등하교길 교통사고 피해 학생 수는 20명으로, 경기 39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사고 현장 15곳 중 10곳은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전남지역은 모두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전국 16개 시·도 중 11번째로 1명이 사망하고 모두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유치원생 등하교길 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도 전남지역으로, 모두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4명의 유치원생이 경상을 입었다.

이처럼 광주지역 초등학교 등하교길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스쿨존 지정률이 76.1%로, 전국 평균(89.5%)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스쿨존 내 ▲안전표지판 설치율은 56.99% ▲과속방지턱 설치율은 49.19% ▲주정차 카메라 설치율은 2.15% ▲속도감지기 설치율은 0.54%에 불과했다.

전남지역의 스쿨존 지정률은 85.52%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지만 스쿨존 내 안전시설 설치율이 미흡한 것은 광주와 마찬가지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스쿨존(School Zone·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요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는 제도.

■2007년도 초등학생 등하교길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육청	피해자수	스쿨존 지정률
경기	39	74.33%
광주	**20**	**76.61%**
울산	20	60.53%
부산	15	98.38%
서울	15	73.53%
인천	15	87.38%
전북	15	61.44%
경남	14	62.00%
강원	12	52.31%
충남	8	86.48%
전남	**7**	**85.52%**
대전	6	65.41%
제주	5	84.93%
충북	5	85.23%
경북	3	63.46%
대구	2	94.53%